

불가리아의 전원 구성정책

불가리아의 현행 원자력계획은 의욕적인 것으로서 미래의 원전비율을 매우 높일 것이다. 2000년까지 총 전력 50%이상을 원자력이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하여 100MW급 4기를 추가 건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불가리아는 동구제국중 부존 에너지가 가장 빈약한 국가로서 총공급에너지의 약 70%를 소련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부존에너지, 특히 석유·가스의 부족은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되었고 이 부문에 대한 집중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불가리아의 원자력부문 투자확대 계획이 지속될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체르노빌사고 이후 각국의 원자력산업에 대한 신중한 투자정책 경향, 환경주의자들이 강력한 반발 등으로 인한 국내외의 압력이 상당히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불가리아의 현행 원자력계획은 의욕적인 것으로서 미래의 원전비율을 매우 높일 것이다. 2000년까지 총 전력 50%이상을 원자력이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하여 100MW급 4기를 추가 건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불가리아는

Kozldui 원자력 발전소에 440MW급 4기와 1000MW급 1기(88년 완성)를 가동하여 총 전력량의 25%를 공급하고 있다. Belene 지역의 1000MW급 발전소가 완공(90년초 예정)될 경우 원자력의 비중은 35%로 높아진다.

또한 당국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하여 원자력의 사용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열이용 열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도시지역 난방 및 열병합발전용 소형원자로의 개발보급을 검토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88년 현재 불가리아의 총개발능력은 수력 88개소 1760MW, 화력 46개소 6500MW, 원자력 1개소 2760MW이다.

이와 같은 원자력의 확대 정책은 주변국가들의 원자력정책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체코 등 원자로 생산국은 원전건설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하여 환경론자들의 반발이 거세어질 경우 원전계획은 수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불가리아의 환경단체들은 경제개혁을 선도할 정도의 정치적 압력단체로 성장하고 있어 이들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만약 불가리아가 원자력에 대한 투자를 감축하게 된다면, 가스가 원자력의 주종 대체에너지로 부상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국내생산 에너지인 석탄은 저품위탄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반면, 가스는 환경문제의 해결과 함께 수입여건이 다른 나라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석탄은 품질이 낮은 갈탄생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역시 환경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석탄소비를 위한 CCT(Clean Coal Tech.) 부문에 대한 당국의 획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석탄화력발전소의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스가 원자력의 대체연료로 선택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불가리아의 국내가스생산량은 미미하지만 가스수입의 지리적 여건은 좋은 것으로 분석된다. 즉 기존에 형성되고 있는 가스 수송망을 주변국가보다는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불가리아에는 소련과 그리스, 터키를 잇는 잘 발달된 파이프라인이 경유하고 있다. 불가리아는 소련으로부터 연간 60억³을 도입하고 있으며 90년부터 이란산 가스를 연간 10억³ 수입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